

오징어게임 의상, '할러윈 데이 인기템' 불티

영화속 복면·점프슈트·트레이닝복에 흰색 슬림은도 해외온라인몰서 인기 한국의 가을엔 이용의 잊혀진 계절 매년 10월31일 라디오 방송 점령

'동그라미(O) 또는 세모(△) 아니면 네모(□)가 그려진 검은색 복면에 핑크색 점프슈트나 번호가 새겨진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잊혀진 계절'을 부른다'?

31일 전 세계의 풍경을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 과도한 상상일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과 가수 이용의 노래 '잊혀진 계절'을 떠올린다면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까.

●오징어게임 특수 속 '착용 금지'까지

'10월31일'은 서구의 명절로 꼽히는 '할러윈 데이'이다. 아이들이 마녀나 해적 등 갖은 기괴한 차림으로 이웃집을 돌며 초콜릿과 사탕 등을 얻어먹는 날이다. 고대 켈트족의 풍습에서 유래했다지만, 이제 관련 마케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를 앞두고 '오징어게임' 속 복면과 점프슈트, 트레이닝복 등이 국내외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최근 e커머스 데이터분석 플랫폼 '아이템스카우트'에 따르면 관련 상품은 국내에서만 9만여개가 넘게 판매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아마존닷컴에서 관련 의상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극중 이정재·정호연 등 게임 참가자들이 신었던 흰색 슬림은에 대한 관심도 폭증해 글로벌 브랜드 반스



31일 '할러윈 데이'를 앞두고 '오징어게임' 의상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2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KBO리그 롯데와 LG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관중들과 그들 레드벨벳의 솔기가 관련 의상을 입고 있다. 매년 '10월의 마지막'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잊혀진 계절'은 이용이 1982년 선보인 곡이다.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중원 기자 won@donga.com·스포츠통계DB·사진출처 | 슬기 인스타그램

의 경우 최근 70%가량 매출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지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조차 인기여서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5일부터 타오바오 등 중국 대형 온라인몰들이 '오징어게임'이라는 검색어를 차단했지만, '오징어'가면, '할러윈 의상' 등 검색어로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타임스와 CNN 등 영국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일부 초등학교가 '오징어게임'의 폭력적 내용에 자칫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의상 착용을 금지했지만, '오징어게임' 의상이 올해 '할러윈 공식 코스튬'이 된 듯한 분위기를 감추지는 못한다.

●"시대적 공감 콘텐츠의 힘"

'오징어게임'에 더욱 열광적인 서구권에서 관련 의상이 밤거리에 넘쳐날 즈음 한국 곳곳에서는 '잊혀진 계절'의 선율이 울려 퍼질 전망이다. 실제로 웬만한 라디오 가요프로그램은 매년 10월 31일 '잊혀진 계절'을 방송했다. 가요 방송횟수 집계 사이트 '차트코리아'에 따르면 노래는 지난해 59회, 2019년 90회, 2018년 60회, ...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2년 55회 등 매년 10월31일 1위에 올랐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10월의 마지막 밤', '뭇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가사와 선율은 스산한 가을밤을 따스하게 보듬는 듯 많은 이들의 귀를 간직여왔음을 보여준다.

강태규 대중음악 평론가는 "노래를 통한 공간이나 감정 등 추억의 각인"이라면서 "누군가 대신 써준 일기와도 같은 노랫말"과 "누구라도 따라 부르는 명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래를 듣는 순간의 감정을 내내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은 결국 "시대적 공감을 얻는 완성도 높은 콘텐츠의 힘"을 가리킨다. '오징어게임'이 되새기는 불평등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공유, '잊혀진 계절'이 이어내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이다.

다만 올해엔 그저 집에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게 좋지 않았겠냐고 방역당국은 권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할러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빈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면서 "모임은 가급적 짧게, 환기에 신경 쓰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아카데미상 수상한 윤여정 금관문화훈장 받아



윤여정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이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로 대한민국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공로로 수훈자로 선정됐다. 은관문화훈장은 가수 이장희, 영화제작자 고 이준연이 받았다. 보관문화훈장에는 고 송재호, 박인환, 작가 노희경이 선정됐다. 김영철·정우성, 가수 김연자·이적, 김태호 PD, 작가 박재범, 성우 최수민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음주운전 리지,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선고



리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리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리지는 앞서 5월18일 밤 10시 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서울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 국내 방송 사상 첫 스텡 공연 생중계



스텡

영국의 전설적인 가수 스텡이 시청자들과 만난다. 28일 MBC는 "스텡이 MBC와 글로벌 NGO 월드비전이 공동주최하는 자선 콘서트 '월드이즈원 2021'(World is One 2021)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공연은 30일 오후 8시 MBCPop 채널로 생중계하며, 11월10일 밤 12시 MBC에서 방영된다. 1978년 록밴드 폴리스로 데뷔한 '잉글리시 맨 인 뉴욕' 등 히트곡을 보유한 스텡이 국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원석 PD는 "스텡이 공연 취지에 공감해 출연을 결정했다"면서 "촬영 경비 외 '노개런티'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태연, "제가 미쳤다고 투기를 하겠나" 분노



태연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이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태연은 28일 SNS를 통해 "부도남에게서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신 일"이라며 "목적의 도와는 다르게 비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미쳤다고 투기를 하겠나"고 분노했다. 앞서 한 매체는 대형 부동산 그룹이 용도를 바꿀 수 없는 땅을 개발 가능한 것처럼 속여 3000여명에게 팔았고, 이 과정에서 태연이 11억원에 매입해 피해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 그룹의 영업사원으로 지목된 개구무연 인수미도 "사기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해당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BTS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 3개 부문 후보



방탄소년단

그림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인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People's Choice Award)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28일(한국시간) 시상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노래 '버터'로 올해의 그룹, 올해의 노래, 올해의 뮤직비디오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이 시상식에서 4개 부문에 수상했다. 같은 소속사의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올해의 새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 올랐다. 방탄소년단 외에 유일하게 후보에 오른 케이팝 그룹이다. 시상식은 12월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열린다.

막내린 '스우파' 열기는 계속된다

11월20일부터 콘서트, 티켓도 매진 간담회·팬사인회등 행사도 줄줄이 '런닝맨' '나혼산' 예능서도 러브콜 확보 영상들 유튜브 차트서 상위권

"잘 봐, 언니들은 이제 '시작'이다!"

엠넷 춤 경연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에서 우승을 차지한 홀리랭 리더 허니제이의 말이 현실로 이루어질 분위기다. 26일 막을 내린 '스우파'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댄서들은 종영 이후 콘서트 등 밀려드는 각종 행사로 팬들을 만난다. 이들의 높은 화제성에 주목한 방송사와 광고계는 치열한 협의

전쟁까지 펼치고 있다.

29일 허니제이, 모니카(프라우던), 아이키(후), 노제(웨이비) 등 출연한 8개 팀의 리더들이 참석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가 열린다. 이들을 향한 언론 매체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 엠넷이 준비한 자리다. 출연자들은 11월17일부터 이틀간 비대면 팬사인회도 연다. 26일 파이널 생방송 무대에 사용된 음원을 묶은 음반을 발매하는 유통사들이 여는 행사로, 벌써 많은 팬이 응모 기간 등을 공유하며 관심을 쏟고 있다.

방송으로 선보인 각종 무대를 직접 펼칠 기회도 마련한다. 11월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창원, 인천 등에서 '스트릿 우먼 파이터 온 더 스테이지' 콘서트를 연다. 각 팀은 최근



26일 총영한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케이(K)댄스의 신드롬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았다. 최종 우승팀 홀리랭의 리더 허니제이(위)는 파이널 무대에서 '이제 시작'이라는 메시지로 활동 의지를 드러냈다. 아래 사진은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홀리랭 멤버들. 사진출처 | 엠넷·허니제이 인스타그램

무대에 새로 올릴 안무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돌입했다. 20일 서울 공연 티켓은

1분 만에 매진됐다.

예능프로그램 제작진도 발 빠르게 이들을 섭외하고 나섰다. 허니제이, 모니카, 아이키, 리정(YGX) 등은 SBS '런닝맨' 녹화를 앞두고 있다. 허니제이는 MBC '나혼자 산다'에도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다. 이들이 앞서 촬영한 각종 화보와 광고 영상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주목 받고 있다. 팀 라치카, YGX의 패션지 화보 촬영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 하루 만인 28일 유튜브 30만뷰를 넘기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 4위와 7위에 올랐다.

엠넷은 곧바로 이들을 내세운 후속프로그램을 기획했다. 11월9일과 16일 경연 비하운을 담은 '스우파 갈라 토크쇼'를 내놓는다. 12월 중 고교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8개팀 리더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서서 '스트릿 걸스 파이터'도 방영한다. 댄서들과 2021 엠넷 아시아 뮤직어워드(MAMA) 공연 협업도 논의할 방침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백건우 "윤정희 동생이 연주료 21억 횡령"

잔고 맘대로 인출...경찰에 고소 "치매 윤정희 평화로운 꿈속생활" PD수첩 보도 '방치'의혹설 반박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부인 이자 배우 윤정희(77·손미자) 방치 의혹에 휘말린 피아니스트 백건우(75)가 이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 또 윤정희의 동생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건우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복동 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정희는 매일매일 평화롭게 자신의 꿈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윤정희의 건강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제자매들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2월 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자, 9월 7일 윤정희 동생들의 주장을 담아 보도한 MBC 'PD수첩' 방송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1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한 경위를 밝히려 논란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그는 윤정희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환자 보호가 목적인 프랑스 AST 방침상 사진이나 동영상은 찍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정희는 현



백건우

자 성년후견인 딸 백진희씨와 공동 후견인 AST(프랑스 사회복지협회)의 보호 속에 지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 정성복 변호사는 백건우와 딸 백씨가 ▲윤정희를 강제로 프랑스로 데려가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방치 ▲후견인의 권한을 남용해 윤정희와 형제자매의 만남 저지 등 그동안 형제자매 측이 제기해 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AST 직원이 '이렇게 환자를 잘 돌보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며 '방치설'을 일축했다. 이어 "프랑스 법원이 2020년 성년후견

인 재판 과정에서 동생들이 법원에서 금지된 사진을 찍는 등 행위로 혼란스럽게 해 만남과 전화 통화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백건우는 "1980년부터 한국 연주료를 윤정희의 동생에게 맡겼지만 잔고를 허위로 알렸고, 2003년 이후 확인된 것만 모두 21억4300여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7일 동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동생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고 설명했다.

백건우는 원만한 사태 해결의 여지에 대해서는 "화해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겠느냐"면서 "이젠 스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